

포천, 풍성한 祝祭 가을정취 만끽

10월 억새꽃 · 개성인삼 축제 아시아 비엔날레 행사 마련

포천지역에서는 10월중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 개최된다.

11회째를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13일부터 28일까지 명성산과 산정호수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억새꽃 축제와 더불어 산정호수 인근에 있는 평강식물원에서는 9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들국화 축제가 진행 중이다.

'개성 인삼이 세계의 인삼이다'는 테마로 2007 개성인삼 축제가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또 읍면동 및 재경포천시민들이 함께 하는 제5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가 10월18일 전야제 이어 포천종합운동장과 반월아트홀에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0월1일 개막되는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 행사는 10월31일까지 1개월간 포천반월아트홀 일원에서 개최된다. 다음은 각 행사별 구체적인 내용이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가을철이 되면 명성산에는 억새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와 달라진 점은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 입장에서 공식행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축제기간을 10월 말까지 설정했다. 조각공원 상설 무대에서는 10월13일 오후 6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은 길놀이 및 역사배 달집태우기, 역사 등 접등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식후 공연 행사로 포천기타동아리 연주회가 열린다.

또 폐막식이 진행되는 28일에는 아프리카 민속공연, 농악공연, 역사 등 나눠주기 퍼포먼스, 산정리 마을주민 장기 한마당이 펼쳐진다.

또 명성산 특별행사로 풀피리와 바이올린, 트럼펫, 오카리나, 색스폰 등 역사발 작은음악회도 함께 갖는다. 아울러 역사업서와 등산장비 무료체험과 무료사진 찍어주기 등과 함께 등산객에게는 평강식물원 입장할인권과 점심 식사권을 배부한다.

▶**2007 개성인삼 축제**
 '개성 인삼이 세계의 인삼이다'는 주제로 열리는 2007 개성인삼 축제는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인삼축제에서는 최적의 환경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6년근 개성인삼을 가까이서



가을철이 되면 명성산에는 억새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포천지역에서는 10월중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 개최된다.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상설전시장에서는 포천시 농특산물관, 인삼가공 전시관, 인형인삼 전시관, 인삼포 전시관, 야생화 등이 운영된다.

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6년근 인삼 구별법, 인삼

종량 알아맞히기, 개성인삼 아가씨 선발대회, 개성인삼 아줌마 선발대회, 즉석 노래자랑, 페이스 페인팅, 인삼인절미 떡메치기 등이 진행된다.

▶**포천시민의 날 행사**
 10월19일 시 승격 5주년을 맞아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14개 읍면동 시민과 재경포천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체육 행사로 진행된다.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18일 시립민속예술단과 시립합창단 등이 반월아트홀에서 축하공연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된다.

19일에는 각각각종 인사들이 참여해 시민의 날 기념 타종식을 청성공원 반월각에서 갖는다.

이어 13시 8사단 군악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장애아동 두드 리댄스 시연, 부모와 함께 하는 꿈나무 비전타 쌓기, 아프리카 로우축 공연, 시립민속예술단 공연, 무상무예, 부채춤 공연으로 진행된다.

문화행사로는 그네뛰기와 율놀이,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는 읍면동별 1개소씩 향토음식장,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국제장터,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 건강부스 등이 운영된다. 또 체육행사로는 민속씨름과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경기가 읍면동 대항으로 진행된다.

▶**포천아시아비엔날레**
 아시아권의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해 아시아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포천시가 발전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아시아 11개국 150여명의 작가들의 다양하고 예술성이 깃든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세계 미술계에서의 아시아 미술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본 전시, 특별전시 등 미술전시회 행사 외에도 부대행사로 국제학술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무대 공연 등 각종 행사가 펼쳐져 10월 한달간 포천이 예술의 중심도시로서 전국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④ 포천시 서울우유 新공장 유치에 심혈

청정 이미지 강조 및 行·財政 지원 약속 서울우유 수도권정비계획법 改正后 유치 가능

포천시의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이 서울우유 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 공장 유치를 위해 물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우유는 최근 설비 합리화 및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인공장(용인시 구성읍)과 양주공장(양주시 덕계리)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전부지를 물색중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유제품 특징상 생산지와 가까워야 하고 물류비 절감 및 쫄면 사육농가가 많은 장점을 내세워 서울우유 공장유치에 나서고 있다.

포천시는 약 3만여평 규모에 일일 생산량 900여톤을 생산하는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대기업 유치라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37년에 설립된 서울우유는 양주공장의 경우 6만여㎡ 규모에 종업원 370여명, 용인공장은 4만㎡ 규모에 28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과 경남 거창 공장이 있는 대기업이다.

서울우유는 기존 양주와 용인공장 생산시설의 포화상태와 더불어 인근 지역이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중이고 공장 이전은 5년후 쯤이 될 것이라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우유가 물색중인 부지는 유가공공장 5천평, 폐수처리장 1천평, 사무실과 전시장 및 회의실 1천평, 창고 및 부대시설 2천평 등 총 1만여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시는 올 1월 서울우유 新공장 유치를 위해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 및 낙농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제안서를 작성해 2월24일 서울우유 본사 경영기획실을 방문해 유치에 따른 포천지역 장점을 설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 제2청과 농림부를 방문해 홍보영상물을 전달하고 유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우유 조합장과 임원 및 대의원에게 포천시장서 함문을 발송하고 9월17일 서울우유 본사 경영기획 및 공장인사 T/F팀을 초청해 서울우유 新공장 유치 제안서와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9월에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서울우유 관계자들은 포천시의 교통문제와 봉화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및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주민미군 공여구역특별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포천시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국도 37호선 확포장, 봉화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등 포천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포천시는 서울우유 新공장 유치 제안서에서 후보지로 새롭게 조성되는 영북면 봉화골산업단지과 일동면 일일, 이동면 일대 등을 제안했다.

포천시는 아울러 서울우유가 포천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 혹은 감면혜택을 제시했으며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One-stop처리 ▶농림부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영상자료 작성 및 방문단 구성 후 현지 방문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부지확정시 상하수도 관로개설 및 하수관거설치 및 진입도로 포장 등 혜택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우유가 포천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싸다는 장점 외에도 많은 낙농가로부터 풍부한 원유 확보로 안정적인 우유생산,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린 제품의 홍보효과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천시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기업의 공장신설이나 증설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항은 서울우유 공장을 유치하려는 양주시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61개 업종중 낙농제품 제조업 공장시설을 특별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2006년말 기준 포천지역 낙농가는 343농가에 1만8천여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낙농가 생산량은 일일 평균 25만리터에 달하고 있고 낙농이 발달해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아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006년08월30일부터 2007년09월29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고마운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고마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금이나 물품을 받으신 분들도 아래와 같이 밝혀 서로 돕고 사는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서로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김종현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고문	200,000원(자동이체)
· 관수동 (재)동천장학회 이사장	200,000원(자동이체)
· 권혁주 포천제일교회 목사	100,000원(자동이체)
· 박범식 이동말길비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한명숙 청송삼계탕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박노연 용아성우(주) 대표	100,000원(자동이체)
· 영영회 포천상이군경회 회장	100,000원
· 강옥자 늘봄꽃화원 대표	20,000원(자동이체)
· 김영숙 태을갤러리 대표	타월 100장
· 송우리지역 노래연습장 모인 김현성 회장 외 회원일동	100,000원(월 정기이체)
- 알린노래방 대표 김영철	
- 원 노래방 대표 강수남	
- 삼 노래방 대표 정종필	
- 오아시스 노래방 대표 정동규	
- 광문 노래방 대표 김진희	
- M·S노래방 대표 김향성	
- 퀸 노래방 대표 정수환	
- 2차 노래방 대표 이민철	
- 유행가 노래방 대표 하준자	
- 풀리 노래방 대표 채정순	
- 코리아 노래방 대표 김영찬	
- 코리아 노래방 대표 이재정	

불우이웃돕기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01-015241 (주)포천신문사

안전은 생명입니다

“저에게는 아버님같은 고령근로자, 친구같은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서 안전은 시작됩니다

산업현장에 고령·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령·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할 때 만들어 집니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